1960年7月1日, 登錄番號 ㄱ—10

The Dongguk University Press

(1955年10, 13第三種郵便物認可, 1954年6月20日創刊)

(第287號)

東大新聞

基督 明德 人格 奉仕 敎育 行動 團結 主義

發行人 李鍾道
編輯人 李鍾榮
發行所 서울市中區 筆洞3街26 東國大學校內
東大新聞社
電話交換③3130—9
本社直通 2 8 4 9 8
(每週金曜日發行)
6個月分・200원

누구나 自己가 理解하는 것밖엔 귀에 들리지 않는다
—(괴에테)—

學生善導策에 腐心

難局對備策도 마련

東國祝典은 五日間 개최

六日, 學生生活指導敎授會議

學生生活을 보다 明朗하고 의의있게 보내도록 하기위한 금년도 學生生活指導敎授會議가 지난六일 오후二시부터 敎授室에서 趙明基總長을 위시한 各學處長과 各科主任敎授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會議에서는 新入生歡迎會를 各學會別로 開催하라는 學生代表들의 決定을 승인하고 佛誕을 紀念하는 第六回 東國祝典의 原則과 屈辱外交反對擊討大會등에 對備할 善導策및 敎授의 硏究生活 保障등이 論議되었다.

그리고 其他論議된 事項은 全體학생명단의 小冊子, 發行할것과 學生服裝問題(숭려학생은 僧侶服), 各行事에 對한 敎授들의 參與問題, 校庭의 美化를 爲해 재떨이를 要所에 配置할것 16日에는 南山圖書館講堂에서 심포지움도가졌다.

李學生處長의 司會로열린 이날 學生生活指導敎授會議는 먼저 趙總長의 『여러모로 어려운世態下에서 學生生活指導에 腐心해온 諸敎授의 勞苦에 감사한다』는요지의 致辭가있은다음 韓日會談을 위요한 그간의 學生動向에對한 설명이 李處長으로부터 있었다. 이어學生指導實務者를 대표한 申學生課長으로부터 작년九월二十四일이후에 發生한 諸事件의 報告가있었다.

이날會議에서는 新入生歡迎會를 各學會別로개최하겠다는 學生대표들의 결정을 승인하고, 환영회는 各科主任敎授의 指導아래 校內에서열되 學科의事情에따라校外에서 가져도 무방하다고 폭넓은 결정을내렸다. 그리고 이에따르는經費는 新入生이 一〇〇원, 在學生은各著 부담을 하도록하였다.

또 佛誕二九九一回를 祝賀하는 第六回 東國祝典을 五日間에걸쳐 실시하고 行事의 綜合計劃은 學生會辭部陣과의 連席會議에서 수립하되 諸般行事에 佛敎精神을 강조키로 原則的인합의를 봤다.

한편 韓日會談反對擊討등의 善導策으로는 國家的인 利害得失을 論한 冊子를배부하여 學生들의理解를 도모하고 敎授들은 人格的、學問的 영향을발휘하여 事前에 善導하자는 결정을내렸다.

이날 參席한 諸敎授들은 敎授硏究費의 支給과 硏究生活에 필요한施設을 해줄것을 學校當局에 强力히建議하고 二部生들을爲한 편의를 最大限으로 고려할것도 아울러 당부하였다.

化綠스퍼캠

고심도무나소 엔日木植

제二十회 植木日을 맞이하여 본교 교직원과 農硏部 部員들은 교내에 기념植樹를 했다. 이날 교직원과 학생들은 東友塔을 중심으로 大學禪院 新築校舍 주변등의 파롯파롯 솟아나는 잔디를 헤치고 「리키다」소나무등 二백여그루의苗木을 정성껏 심어 캠퍼스 緣化에 이바지했다. 그런데 昨年度 二천그루에 비해苗木이 줄어든 것은 나무를 심는것보다 그것을 잘 키우는 것이 問題이기 때문에 今年度에는 그管理에힘쓰게 될것이라 한다.

歷史的現實把握토록

□現代 佛敎徒의 當面課題□

「가드」博士 講演會서力說

美國「에일」大學에서 佛敎學을 전공하고 同校에서 四年間 佛敎學을 강의한 「리처드·가드」博士의 강연회가성황을 이룬가운데 六日下午 C二〇四강의실에서 열렸다.

一九五九年에도 本校大學院에서 강연을 가진 일이 있었던 가드博士는 이날 「현대佛敎徒의 當面課題」라는 제목으로 약 九〇분간에 걸쳐 강연을 했다.

이날 가드博士는 主로現代世界에 있어서의 불교도가 歷史와 現實을 어떻게 理解해야 할것이며 또 불교도의 當面과업과 佛敎敎育의 諸問題에 對해 말하였다.

그는 오늘날의 불교도가 世界와 人類에게 자비로운 協助를 베풀기 爲해서는 先 現實과 歷史를 明確히 理解, 把握하지 않으면안되며 또한 모든 佛敎用語를 現代人에게 알맞는 用語로 再整理하는것과 社會、科學、心理、經濟學等 全部門을 佛敎的인 精神에 입각하여 分析 批判하는 일이 時急함을 力說하였다.

衆生이 부처님의 理想에 歸依하는 길을 案內해 修行者와 在家修行者들을 育成하고 指導하는 敎育上의 問題, 그리고 社會的 福祉의 적극적인 實施等 ·心하지않으면 안될 重大한 點들이라고 말하였다.

李貨永博士의 通譯으로進行된 同講演會에서 가드博士는 또한 世界哲學上의潮流에서 지금까지 佛敎가던진 影響力과 앞으로 이에 參與해야할 展望, 그리고佛敎와 他宗敎와의 相互理解의 重要性에 對해서도 언급하였다. 二十餘年間을 西洋人으로서는 드물게 佛敎를 硏究하고 특히 東南亞에서 佛敎의 번영을 위해 獻身해온 同博士는 오늘까지 世界에서 이렇다할 佛敎辭典, 佛敎年表및體系的인 佛敎歷史가 변변히 出現하지못했음을 지적하고 佛敎의 硏究를위한 圖書館 및 文獻整備의 必要性을강조하였다.

四次追加登錄 10日로마감

學校當局은 三次에 걸친 登錄期間中 아직까지登錄을 마하지못한 未登錄學生들을 救濟하기 爲하여最終的으로 六日부터十日까지 第四次追加登錄期間을 마련하였다.

이번 最終 追加登錄期間中에는 未登錄學生이全員登錄을 마하여 단한사람이라도 除籍당하는일이 없기를 바라고 있다.

圖書館週間 12 18日까지

第二回圖書館週間을 맞는 韓國圖書館協會에서는 심포지움및 各種座談會를 갖는다. 12日부터 18日까지 일주일간을 도서관주간으로 設定한 同協會에서는 12日과 14日 兩日間 T·V및 라디오座談會를 열고 「現代社會와 圖書館」이라는 題下 의 新聞座談會를 갖는한편 16日에는 南山圖書館講堂에서심포지움도가질計劃이다.

한편 本校 도서관에서도 이週間을맞아 12日上午10時 圖書館會議室에서 敎授및學生과 도서관當局者들과 席座談會를 開催하는등 大學도서관의 當面課題의 行事들을가질 예정이다.

木曜講座開催

講題「現代와宗敎」

東國思想硏究會에서는 定期木曜講座를 八日下午四時三〇分 大學禪院에서 가졌다. 그런데 이날講題는 「現代와宗敎」였다. 洪庭植敎授의 「現代와宗敎」

菩提樹

維摩居士

부처님의 俗世弟子로서 오히려 出家弟子보다 늦게 해지고있다. 그리고 그의 人格에대해서도 여러가지 興味있는 問答한것이 널리 敎化力을 가진보배 維摩居士가 있었다. 불교에서는 特徵을 後世에 傳하고 있다. 維摩居士는 세상사람들의 괴로움을 건지기 爲해서 한때의 方便으로 비耶離(廣嚴城)에 居士中에 維摩居士라하는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過去 無數한 諸佛을 親近하고 大乘經典에 나아가 淨했고 어려운것을 참는 行이 놀라워서 무슨일에도 짜증이나 성을내는일이 없었다. 그의 人格은 라울만치 卓越한 智見과 慈悲로 모든 無智를 攝說敎化하여 決定의 智慧로 모든 疑惑을 끊어주었다. 그는 이와같이 維摩居士는 白衣의 居士인데도 沙門과 같이 淸淨한 律行을 받았다. 妻子와 권속들이 있는것을 보이기는했으나 항상 梵行을 계을 지키고 있었다. 그는 항상 空한 이치를 깨달아 無所得의 說을 내세워 俗世에서 불교를 연구하는 일에 몰두하였다. 그는 嚴正히 했으며 이들의 榮譽를 받고 있는 것이다.

그는 다하여 財産이 無限이많아서 가난한 사람들을도우기를 즐겼다하며 부처님의 戒를 받드는것이 淸淨했고 어려운것을 참는 行이 놀라워서 무슨일에도 짜증이나 성을내는일이 없었다. 그의 人格은 라울만치 卓越한 智見과 慈悲로 모든 疑惑을 끊어주었다. 그는 決定의 智慧로 모든 無智를 攝說敎化하는 大乘經典에 나아가 淨했고 어려운것을 참는 行이 놀라워서 무슨일에도 짜증이나 성을내는일이 없었다. 그의 人格은 라울만치 卓越한 智見과 慈悲로 모든 疑惑을 끊어주었다. 그는 決定의 智慧로 모든 無智를 攝說敎化하는 大乘經典에 나아가 淨했고 어려운것을 참는 行이 놀라워서 무슨일에도 짜증이나 성을내는일이 없었다. 그의 人格은 라울만치 卓越한 智見과 慈悲로 모든 疑惑을 끊어주었다. 그는 決定의 智慧로 모든 無智를 攝說敎化하는 大乘經典에 나아가 淨했고 어려운것을 참는 行이 놀라워서 무슨일에도 짜증이나 성을내는일이 없었다. 그의 人格은 라울만치 卓越한 智見과 慈悲로 모든 疑惑을 끊어주었다. 그는 決定의 智慧로 모든 無智를 攝說敎化하는 大乘經典에 나아가 淨했고 어려운것을 참는 行이 놀라워서 무슨일에도 짜증이나 성을내는일이 없었다. 그의 人格은 라울만치 卓越한 智見과 慈悲로 모든 疑惑을 끊어주었다. 그는 決定의 智慧로 모든 無智를 攝說敎化하는 大乘經典에 나아가 淨했고 어려운것을 참는 行이 놀라워서 무슨일에도 짜증이나 성을내는일이 없었다. 그의 人格은 라울만치 卓越한 智見과 慈悲로 모든 疑惑을 끊어주었다.

社說

大學新聞의 自省과 誠實

—제9회 신문주간을 맞아—

사람을 가리켜 「생각하는 잘대」라고 하지만 다른 뜻으로는 사람이란 말을 하는 동물이다. 사람이 말을 한다는것 이것이 바로 다른 짐승들과는 다른 점이요 또 뛰어난 까닭이다.

「생각하는 잘대」의 뜻을 나타내는 이말을 글로 적어서 같은 시간에 여러 사람이 보고 생각하고 또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게 한다는 것은 더욱 소중한 일이다. 一八六六년四월七일 우리나라에 「독립신문」이 처음 발간된지도 벌써 七〇년가까이 되었다. 우리들은 이 이날을 「신문의 날」로 정하고 그 전후 一주일을 「신문주간」으로 하여 지켜온것도 이제 아홉번째의 일이다. 더욱이 올해에는 「신문의 성실」을 다짐하였던 것이 아닌가.

우리가 신문을 만들어 오는 동안 「뜻하지 아니한 잘못」을 저질러 남을 욕되게 하거나 그릇치게 하는 일이 있었음을 스스로 뉘우치면서 보다 무거운 사명감에 옷깃을 여미게 되는 것이다. 우리들이 아무리 티끌만한 딴뜻이 없이 오로지 바르고 빠른 기사를 쓰기에 충실하였다고 하더라고 그것이 어떤 특정인에게 뜻하지 아니한누를 미치게 되었다면지 하는 것은 참으로 괴로운 일이라 아니할수없다. 더욱이 이러한 일들로 말미암아 신문을 싫어하거나 또는 미워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며는참으로 슬프고 기막힌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이 기회를 통하여 우리들도 「대학신문의 사명」을 충실히 다해왔나 하는것을 깊이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더욱 분발하고노력하여 아카데미한 대학신문의 고고한 사명을 다할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바이다. 눈들어린 부정의 핏자국으로 아로사인 언론전배들의 고초를 되씹으면서 우리들의 노력과 성실로서 「언론자유」의 찬란한 꽃을 우리들의 손으로 피게 하여야 할것이다. 「거짓이 없고, 참되고, 정성스러운」 믿음주 있는 신문을 만들어 넌다는 것은 우리들의 자랑스러운 고통이요 뼈아픈 사명이라고 아니할수 없다. 일을 서두르는 나머지 소홀하거나 부정확해서는 결코 진실을 사랑하는 양심과 어느때고 진실을 사랑하는 독자들의 명예를 존중하는 윤리감으로서 참되게 전진하는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사실을 올바로 남에게 알린다는 일은 극히 어려운 일이다. 더욱이 제한된 시간과 지면위서 사실없이 사실을 전달한다는것은 참으로 위험이 아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맡은바 책무일진대 다른 변명이 또 어디 있겠는가.

허나 우리들에게도 가시발길은있다. 당연히 내야 할 것을 못내게 된다던지 크게 다투어야 할 것을 작게 다투지 않으면·안된다던지, 그 허지만 이러한 일들은 하루 빨리 고쳐져야 할것이며 우리들의 손으로 시정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결코 게으르거나 전방지거나 자만해서는 안될것이다. 늘 부지런하고 겸손하고 부족하다는생각에서 더욱 애쓰고 노력해야 할것이다.

「사람은 허물이 없을수 없다. 고치면그만」이라는 옛 성인의 말씀도 있지만는 필수있으면 허물이없게 고칠 필요가 없도록 하는것이 더욱 중요한 일이요 올바른 일이 아니겠는가.

우리는 늘 조심하고 늘 반성하고 늘 부지런하여 이른바 「성실한 대학신문」을 만들어 내야 할것이며 이것이 비단 우리 캠퍼스만의 가서는 우리사회에까지도 밝음을던져주게 되는 것이다.

이 기회를 통하여 우리가 학교당국이나 독자들에게도 한마디 하지않을수 없는것은 이와같이 중대한 우리들의 사명을 깊이 이해하고 보다 마뜻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주기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우리들이 「성실한 언론」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때에는 가차없이 책벌을 가해주고 올바른 길을 걷기에 피땀을 흘렸을경우에는 언제나 위로하고 성원하여주기 바라는 바이다.

每年20町步植樹

演習林開發五個年計劃세워

12日부터初年度作業

學校法人 東國學院은 演習林에 放牧, 植樹, 造林等의 五個年計劃案을 세우고 每年二十정보씩의 植木을한다. 금년엔 첫단계로 오는十二日부터 水鍾寺(京畿道楊州郡所在) 演習林 一帶에 「리끼다」소나무, 落葉松, 잣나무등 各種苗木을 심기로하였다. 演習林관리소가 主管하게 될 이번 計劃은 全國的으로 擴大한 東國學院所有林野中 그 「테스트·케이스」로 水鍾寺一帶에混牧, 風致林造成을 꾀하게된것이다. 한편 이곳에는 宿舍도지어 常任職員을 派遣하여 그運營에 万般의 對策을 講究할것도 고려하고있다. 그런데 水鍾寺所屬의 總林野는 千여정보로 推算되고있다.

무거운使命感다짐

大學新聞記者協會總會

大學新聞의 質的向上과 大學言論의 새로운 轉機를마련하고자 전국 二十九개大學新聞의 學生記者들은 지난四日 全國學生會館에서 韓國大學新聞記者協會總會를갖고 다시한번 스스로의 무거운 使命과 責任및 公正性을 다짐하였다.

이날總會는 不義와 不正을 배격한다는 宣言文낭독에이어 地方에 支部를 設置할수있다는 會則改正이 있었다. 大學新聞의 自由, 公正性, 報道論評의限界를 명확한다는것과 또 記事에對해서도 應分의 責任을 진다는 行動강령도 채택하였다.

一九六五年度 協會豫算案(總收入 三一四,000원 總支出三一七,000원)은 豫備費八七,000원은 無修正통과되었으며 정탐농가구호를위한 慈善音樂會(五月中)四·一九學生革命紀念大講演會(四月中)、在日교포와「펜팔」교환운동展開(六月中)、統一問題에 關한 대학생論文모집(九月中)、報道寫眞展示會(十一月中)등 事業計劃을수립하였다.

그런데 決議文과 總會文은 常任委員會에 委任하여 一週日以內에 發表하기로決議를보고 이날 總會를 마쳤다. 한편 三日에는 심포지움을 열고 各新聞의 現況을 보고받은다음 社의 人選및 構造的구, 學生記者問題等 各種問題에 對한 討議를 進行하였다.

이날 모임을 祝賀하기 爲하여 洪鍾仁氏의 祝辭가있었고 吳周煥(高大敎授)씨의 「大學新聞의當面課題」와 千寬宇(東亞日報編輯局長)씨의 「한국신문의 當面課題와 傳統」이란 特別講演이 있었다.

土曜法會

▲演題=懺悔의 意味
▲演師=朴性焙교수
▲日時=四월十일하오三시
▲場所=大學禪院

反射鏡

「푸른언덕」

이나 「푸른 숲」은 때때로우리에게 慰安을 준다. 거기엔상상만으로라도마음을 쓰다듬는 매력이 있기때문인지도 모른다. 學究나職務에 시달리다가도 먼산의 점푸른 원경을 바라보노라면 절로 가벼워지는 것이다. 都市人들이 흙을 들먹이나 한그루의 나무를심고 싶어하는 마음이 얼마나 自然스러운 욕심인가를 알만하다. ▲大學의 거리와 캠퍼스는 본래 「숲」이라는말로 표현되어 왔다. 숲속의 고요하듯 말이다. 「아카데미」란 말부터가 「아카데뮤스」란 英雄의 이름을 따서 부른 숲에서 유래한다. 古代그리이스 傳說속에 나오는 이야기다. 「뮤라본」이 숲속을 거닐며 철학을 강의하면서 부터 굳어진 이름이다. 그러고 보면 學園과푸른숲과의 인연은 짚지않을수 없다. ▲우리의 大學街에도 나무가있긴하다. 그러나 이것을 숲이라고 할순 없다. 수풀은 나무가 무성하게 우거진곳을 말하는 때문이다. 雜木들만이 제멋대로 앙증스럽게 자라는 이곳을 「韓國의 아카데뮤스」라고 부르기엔 너무나 살벌하기만 하다. 歌美처럼 수백년 가꾸어진 잔디밭이나숲을 당장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긴 眼目으로 나무한그루 심는데도 計劃이있어야 하겠다는 것이다. ▲작년까지만 해도 校庭의 綠地帶化는 土壤이 적당치 않다는 理由로 덮어두었었다. 금년엔 三, 四株의 巨木들이 심어졌다. 植木日에 새로 심었던 수백그루의 나무는 제하고 말이다. 그러나 기왕 校庭을 하나의 綠地帶로 만들 생각이고보면 거기엔 보다 美的인 構圖가 요구된다. 校庭의 잔디밭부터가 이미 設計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웬만큼 규모있는 個人住宅이면 庭園을 만드는데도 專門家가 動員되는것이 상식이다. 校庭의 綠化計劃에 專門家가 참여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보여하고 있어야 하겠다. 大學캠퍼스의 綠化는 극적인 추진이 있어야 하겠다. 大學캠퍼스의 綠化는 하나의作品으로 승화될때까지 계속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人工美, 그것은 自然과독자, 그러나 보다 깨일새로운 것이기 때문이다.

레스링大會서一位

李錫三·金益鍾兩君

지난二일부터 연三일간불을뿜던 六五年度 世界「아마추어」레슬링選手權大會에서 本校 李錫三(經四)金益鍾(經四)兩選手는 善戰奮鬪에 各各 優勝을 차지하여 東京올림픽大會이래 꾸준히 力量을 길러온 레슬링東大의 面貌를 다시한번 誇示하였다. 제五회 아시아競技大會 바로 직후보선수 一次選拔戰을兼한 이 大會는 自由型五四명, 「그레꼬·로만」型四〇명등 都合九四名 이 參加하기가운데 師大附高 강당에서 熱戰을 벌였는데 이大會에 出戰하여 善戰奮鬪한 本校選手들의 戰績은 各級別로 다음과같다.

◇自由型

▲밴텀級=一位 李錫三(經四) ▲라이트級=二位朴在昇(警行) ▲페더級=三位張鎬成(林一)

◇그레꼬·로만型

▲라이트級=一位 金益鍾(經四) ▲페더級=二位 張鎬成(林一)

法政系가首位

3月中圖書閱覽

三月中 本校 在學生들의 圖書 閱覽狀況은 總 閱覽人員數가 一三,八九四名이 三月中 貸出된 圖書數는 六二五卷이었다.

그런데 그중 政法系 書籍이 一六七권으로서 首位를차지했으며 文學部分이 一三五권으로次位를 올려놓았고 商業과 社會部分이 四권과 六권으로 最下位였다.

敎職科目 申請

12日까지 敎務課에

현재 二學年에 在學중인 學生은 오는十二日부터 十二日까지 敎務課에 申請해야한다.

各學年이 四學年過程을 通하여 이수해야할 敎職學點은 現在二學年은 二五學點, 三學年은 一九學點, 그리고 四學年이 十六學點인데 申請期間이 經過하면敎員資格証을 取得할 意思가없는것으로 간주한다. 이번 敎職科目 申請希望者는 現在 各學年의 敎職科目申請者 T·O중의 범위안에서 學業成績順으로 選拔하여 申請希望者는本人이 必히 印章을 持參하고 敎務課에 出頭하여야 한다.

그런데 敎職科目을 申請할수있는學科는 다음과같다.

國文科、英文科、史學科、物理學科、化學科、法學科一·二部、政外科一·二部、商學科一·二部、經濟學科一·二部、農學科、林學科.

申請方法

◇本社 전체용지를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에 가서 所定金額을 지불하십시요.

〔申請處〕

本社(乙支路入口, 商業銀行 鍾路支店옆)(전화 ①-2292. ③-6927)

◎中央書林(光化門)(中大앞) ◎東亞書林(청계천 6가)
◎良友堂書店(忠路 2가, YWCA 맞은편) ◎長陽大 構內書店
◎梨花書林(梨大正門 앞) ◎高大構內書店 및 正門 앞 고려책방
◎보문사(종로5가 네거리)

時事英語研究
4月號 4月20日 발매 값 80원
Africa: Birth of a Continent by Arnold J. Toynbee
얼마전 까지도 역사가 없었던 「아프리카」대륙에 동이 터오고 있다.
Napoleon's Most Intimate Love Letters to Josephine by Frances Mossiker
세기의 영웅 Napoleon의 人間性을 샅샅이 드러내주는 그의 戀書가 공개되었다.
The Spread of Nuclear Weapons by Raymond Aron
美·소의 독점물이던 核武器가 점차 세계열강제국으로 퍼져가고 있다.
Nonviolence: Moral Challenge for Peace and Justice by Martin Luther King, Jr.
The Mod and Rocker Riddle by Alec McGuire
DIALOGUE SCRIPT
The Ship of the Black Witch <流血

40% 大割引
定期購讀者募集
4月20日까지

		平常價格	大割引價格
「時事英語研究」	1年分	1,000원	650원
「英語世界」	1年分	600원	380원
「中學英語」	1年分	420원	280원

英語世界
4月號 값 50원
★바르도와 사강의 對話—사랑과 性과 人生과 結婚
★큭의 추억속에 살아있는 Kennedy
★세계의 歷史를 바꾼 Einstein의 便紙한장
★Pen pal English—外國學生들의 便紙 솜씨, 外國 Pen Pal의 住所
★Beatles가 말해주는 Beatles
★Hit Song Corner—High Noon의 主題歌

中學英語
4月號 값 35원
드디어 創刊되다

傳統에 挑戰하는 英文法構造

科學的인 言語分析을 土台로

宋 堯 仁

英語를 비롯한 歐羅巴의 여러 언어들이 羅典語의 굴레를 어느 정도 벗어나서 獨自的인 발전을 이룩하게된 것은 中世의後期에서 르네상스의 초기에 접어들면서 이다。이들 言語들이 「단테」와 「초오서」 같은 위대한 作家들의 힘을 입어 시대적인 母國語意識이 漸高됨에 따라 文法에 대한 興味도 또한 점차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는 것인데 英文法의 효시는 「세익스피어」와 同代人인 「벤·존슨」이 17세기초에저술한 「英文法」이다。그뒤에는 1653年에 「새뮤엘존슨」이쓴 「英語文染」 1761年에 「조셉」 프리스틀리」가 내놓은 英文法 1762年에러버트로우쓰가 著述한 「英文法略論」 1788年에 「차알스 쿠우트」가발표한 「英語文法原論」 1795年에 「린들리머리」가 쓴 「英文法」 18117年에 「윌리암커벧」이 낸 「英語文法」 1857年에 「새뮤엘 커어캄」이 著述한 「英文法詳論」 1863年에 「알렉산더 베인」이 쓴 「高等英文法」 등의 대표적인 規範文法을 거쳐 現代의 「헨의 스위트」를 起點으로한 記述및 「네나드 블룸 필드」를 基點으로한 構造文法時代에 이르고 있다。

「벤·존슨」이나 그 뒤를따른 거개의 傳統的인 英文法 학자들은 羅典語에 能通할뿐더러 때로는 희랍語에도 조예가 깊은 사람들이었으며 대부분이 初年時節부터 羅典語가 그네들의 母國語인 英語보다도 더우수하다는 先入感에 사로잡혀 교육받아온 사람들이었다。 英美에서 오늘날도일부 國民學校를 「그래머·스쿨」(文法學校)이라고 부르고 있는것은 본래 이學校들에서 羅典語文法을 교육했다는데 起因하는 것이다。「르네상스」나 十八世紀의 학자들이 大學을 연한 무렵에는 이미 同僚들과 羅典語로 對話와 文涌을 할수있을만큼 熟達이 되었든것인데 「새뮤엘·존슨」같은 사람은 비록 大學生活을 三년밖에는 하지 않했지만도 羅典語와 희랍語로서 作詩를 할 정도였다。그러므로 이들이 羅典語文法을 英文法의 規範對象으로 삼고 英語를 羅典語式으로 분석을한것은 無理가 아니었다。十七世紀와 十八世紀의 前述한 「프리스틀」을 除外한 大部分의 文法學者들은 英語를羅典語文法에 두드려 맞추는데 급급한나머지 羅典語의 飾理로 해결이 안될 경우에는 억지로 文法現象을무미건조 造作을 하기까지한 흔적이 보이는 것이다。 영어가 羅典語와 마찬가지로 印歐語族에 속하기 때문에 비록 공통적인 文法要素를 많이지니고있기는 했지만도 相當한 부분이 英語自體의 發達課程에서 효리어졌거나 또는 「PIDGIN」 英語 등 이와같은 현상을 이들 초기의 文法學者들은 「退步로 만 간주하였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이들은 이러한 "退步"현상을 沮止하는데까지 노력을 기울이었든것이며 나아가서는 영어가 印歐語의 文法을 탈피해버리고 극히 복잡미묘한 독특한 文法體系를 갖추게되었다는 중요한 사실을 看過해버린 것이다。오늘날 우리네가 접하는 대부분의學校文法은 이와같은 非科學的인 學究態度의 遺産物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印歐語文法이면 正統이라고 믿었던 在來의 思考方式에 혁신을 불어일으킨것은 近者의 言語科學이 시야를넓힌 연후에 地球上에는 東洋과 北美洲에 散在하고 있는 音調言語라든지 一部 亞細亞와 아프리카地方에서 使用되고있는膠着語라든지 기타 분석은 고사하고 分類조차하기힘든 복잡한 土着民들의 言語들을 포함해서 地球上에는 실로 三千에 가까운 雜多한 언어가 있다는것을 깨닫고나서 보편적이고 理想的인 文法은 존재치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는 이千態万像의 言語들이갖는 文法體系를 보다 더 면밀히 기술하고 분석을하여야되겠다는 覺醒을 한데서 緣由하는 것이다。

최근 歐美에서 人類學의 발달과 더불어 發展한 言語科學은 특히 美國에서는 第二次世界大戰을 고비로하여 戰爭遂行의 實際的 필요에따라 이제까지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수없었던새로운 言語 分析方法論을확립하기에 이르렀다。

지난二十五년간의 英語에 관한 과학적인 分析硏究는 실로 놀라운바 있는데 다만 그論旨와 方法論이 傳統文法에대해서 정면으로충돌하는 革新的인 성격을띄고 있기 때문에 學界에서는 論難의 대상이되기도 하는바 그代表的인 作品으로서는 「G·L·트레이저와 「H·L·스미쓰」共著인 「英語構造概觀」(一九五一)「C·C·후리스」가쓴 「英語構造論」(一九五二)및 「노옴·촘스키」가 낸 「構造的 構文論」(一九五七)等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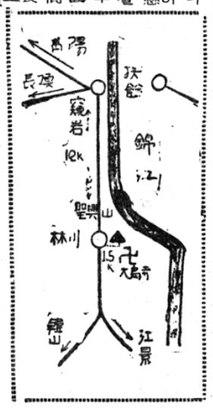
새로운 言語科學의 산물로 등장한 新英文法 즉 構造文法에서 다음과 같은 세가지의 사실을 前提로한것을 그 특징으로 한다。

첫째 言語硏究의 大本은 國語에있다。이것은 모든 언어의 기원이 國語에 있었으며 文語는 言語發達史上 훨씬 후기를 차지한다는것을 勘案한다면 이상할 것이 없다。 둘째 言語硏究에는 方言을 인정해야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方言은 廣義의 方言으로서 지역적인 方言뿐만아니라 社會的인 方言、직업적인 方言、性別方言능 실로 그 구분은 많은 것이다。그래서 교양있는 中流의 영국인、또는 미국인이라면 아무런 곤난이없이 노력이없이 별로 특별한 노력이없이도 境遇와 필요에 따라 이와같은 하다한 方言중에서 가장 적절한 方言을택 하여 사용할줄 알고 또 지시각각으로 변천해가는 社會生活의 흐름에 따라 상호 융통성있는 方言에서 저方言으로 옮겨가며 融通性있게 言語生活을 하게 되는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言語라는것 자체가 日常生活을 영위함에 있어서 상호 意思疏通에 지장을 주지않는 音組織과 語彙및 文法을 가장 많이 共通的으로 구비하고 있는 一團의方言 에는 억지로 造作을 하기까지한 흔적이 보이는 것이다。 영어가 羅典語나 희랍語와 마찬가지로 印歐語族에 속하기 때문에 비록 공통적인 文法要素를 많이지니고있기는 했지만도 相當한 부분이 英語自體의 發達課程에서 효리어졌거나 또는 미거나 造作을 하기까지한 흔적이 보이는 것이다。 某大學校에서는 서울運動場에까지 進出하여 各種競技를 開催한일이있다。 실로 巨大한 행사이었다。이行事에 消費된人的手苦와 財的價値를 深思再計할때 또한 莫大한 것이다。 이와같이 莫大한 人的手苦와 財的價値를 消費하여 興行하려는 大學祝典은 文字 그대로 興行이라야하고 擧校的祝典이래야할 것이다。 運動競技會는 運動하는 選手들만의 競技會에 끝나서는 아니될 것이고 各 두려는 남어지 二重의 効果를 거두는데 喪失하는 逆効果를 다。 각자의 効果는 氣 發을했다。 室內는 照明 研究活動을 발표하기 위 會合에 그치지말고 擧校 各種푸로를 실지어 校的분위기에서 이룩되는것 校記念日을 祝賀하는 行 치못하겠으면 大學祝典을 事는 있었으나 이러한 大 廢止하거나 一日間으로 短 學祝典은 없었던것 같이 縮하여서 祝典은 祝典대로 기억된다。 이것도 美國 效果的으로하고 講義는 等地에서 流行해온 하나。 손님들이가도 본체만체 文化的産物이라 하겠다。 불러야 오고 飮食 더욱이 大學祝典의 「푸 賣店은 校內賣店보다 行事內容은 各部門의 「푸 「門前賣店」이 人氣가좋다。 로」로 구성된다。 우리 賣店앞에 照明을 더욱밝 大學에서도 學生相互間親 게 해줬으면 좋겠다。 睦을 도모하고 講義 「人生은 氣分派」—映 時間을 이용하여 興行 畵題目은 아니지만 특히 技會는 運動하는 選 氣分의 적응으로 이룩해야 手들만의 競技會에 할 것이다。 그럼으로 大學祝 氣分에서는 效果가 없 典은 講義를 계속시키는 다。 氣分에서 效果가 있 것이며、 祝典 다。 逆効果는 氣 氣分의 적응으로 이룩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大學祝典은 講義를 비롯하여 各大學의 學別對抗 各種運動競技會 各學會別로 研究活動을 발표하기 위 各種푸로를 실지어 校 外公館까지 賃借하여 對外活動으로 展開시킨다。 某大學校에서는 서울運動場에까지 進出하여 各種競技를 開催한일이있다。 실로 巨大한 행사이었다。이行事에 消費된人的手苦와 財的價値를 深思再計할때 또한 莫大한 것이다。 이와같이 莫大한 人的手苦와 財的價値를 消費하여 興行하려는 大學祝典은 文字 그대로 興行이라야하고 擧校的祝典이래야할 것이다。 運動競技會는 運動하는 選手들만의 競技會에 끝나서는 아니될 것이고 各 두려는 남어지 二重의 効果를 거두는데 喪失하는 逆効果를 다。 각자의 効果는 氣 氣分의 적응으로 이룩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大學祝典은 講義를 계속시키는 것이며、 祝典 대로 效果的으로하고 講義는 손님들이가도 본체만체 불러야 오고 飮食 賣店앞에 照明을 더욱밝 게 해줬으면 좋겠다。 「人生은 氣分派」—映 畵題目은 아니지만 특히

高山古刹을 찾아

(15)

白馬江西南對岸에位置
六世紀前半期에創建
彌勒菩薩의壯嚴한姿態



大烏寺

扶餘邑 서쪽을 유유히흐르는 白馬江의 西南對岸에 위치하고 있는 巍岩으로부터 남쪽으로 三十里지점에 林川이란 面所在地가 있다。이 林川은 三南으로부터 扶餘로 가는 길, 또는 서울로가는 길의 중간지점에 위치하여 百濟때부터 李朝末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水陸의 교통요지로 상당히 발전되었던 곳이다。 여기서 「버스」를 내려 동쪽 聖居山(二六一米) 을향해 걸어 올라가면 頂上 못미처 아늑한 숲속에 자리잡고있는 大烏寺에 이르게 된다。

이 절은 二百餘坪밖에 안되는좁은 境地위에 서 있는小刹이지만 歷史는 꽤깊다。「扶餘邑誌」에보면이절은 百濟僧 諱益이 創建하였다고 하는데諱益은 印度에갔다가 梵本五分律을 가지고百濟에도라와 十一米의 巨大한 石造미륵보살立像(보물二七)의壯嚴한 姿態를 볼수가있다。高麗時代의 作品으로 推定되고 있는 이 입상은 一個의花崗岩의 암塊를깎아 陽刻한 것으로 높이에比해 돌레가 四·八米나되어 銅體가 鈍厚하게보이고 精巧한 作品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思惟미륵보다는 優秀하다는것이 定評이다 佛像앞에는 自然岩石을 그대로이용하여 만든 臺石이 床처럼 놓여있는데 이것도 佛像과 同代의것이라고 한다。 절뒤 聖興山의 頂上에는 百濟때에 加林(또는 嘉林)山城이라 불리워졌던 聖興山城의터가 남아있는데 이 山城은 東南을 제외하고는 깎아 지른듯이 험준하며 山城에서는 扶餘邑內가 遠望되고, 錦江의 흐름을 세세히 살필수있게 내다 보이므로 이부근에서는 守備城으로서 第一級의山城이었다고한다

<像立菩薩勒彌遺石寺烏大>

書店

賣上高낮고 位置나빠 울상

구내 서점은첫째。位置가 나빠 고민 거리이다。各種「텍스트」를 一千二百권이나 준비하고 있으면서도 학교앞의 書店보다 賣上高가 적은것은 全的으로 位置가 나쁘고 두번 돌아서 出入하기때문에 영업장소의 첫째조건인 場所에서 낙제감이라는 것이다。許衛교수는 그것의 색다른의견을 자기 친구들이 싫어하는 人間心理때문이 아닌가싶다고 「心理的인 영향」의 意見을내세운다。

致의 한 방법으로공 고객 誘 중전화까지 가설했으나 効果가 크지않다는 것이다。價格은 冊에따라 다르지만 約十五% 引下해 주고있다。二층 매점옆에 자리잡고 있는 서점에서는 이外에도 各種雜誌도 준비하고있다。主人 李忠業(34)씨는 같은 값이면 밖에서보다 안에서 사주는게좋지않는가라고 하지만 역시 고객유치의方法을 달리해야할것같다。

月賃는 一천五백원!。어느 교수는 자기著書를 구내서점에서 팔려고했으나 출판사측에서 그보다 낮게 팔려면 頂上 못미처 아늑한 숲속에 자리잡고있는 大烏寺에 이르게 된다。

實店

學校直營안되나
賣價提供하면赤字

본관二층 컴컴한 복도에 자리잡고있는 매점은 그 位置에 比해 學生들의 利用度는 괜찮은편! 趙淑(40)씨는 位置만 學生들이 다니기 좋은데로 옮겨주면 한층 그 利用度가 높아질것이라고 안타까운 표정이다。 출류는 各種學用品에서 담배, 빠이 식당이야말로 構內서비스機關의代表라고해도 過言이 아닐 정도로 學生의 食生活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곳이다。그래서 食堂에對해서 유달리 말이많고 또한 불평, 불만이 있다는것은 그만큼 利用度가 높기때문이다。

현재 식당의 고용인원은 모두十四명이고 하루에 평균七백그릇의 음식이 이곳에서 소모된다。한때「食堂의 四大惡」이란 말이있었다。 즉 값비싸고, 量이 적고, 맛없고, 非衛生的이란 것이다。그러나 허두맹랑한 죠크만은 아닌것 같다。

첫째 값에대한 學生과 教授들의 의견을들어 보자。張秀正(林三)군은학교앞에선三○원짜리 「백반」한그릇이면 量으로나 맛으로나 滿足할만한데, 설농탕 한그릇에 四五원하는 食堂은 말로만實費이지, 비싼값이라고!。구내食堂을가끔 利用하신다는 朴鍾文教授는 運營의 妙를 잃은 食堂側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값싸게 견이었다。 그러나 事實은 적어도 그릇의 洗滌을 어떻게하느냐가問題!。 음식물속에 「쓰레기」같은것들이 들어있어 主人을불러 호통치는 일도 여러있고!。 그래서 應用生物學科의 錢六洲君은 一般 營業所에 市當局이 위생검사를 하고있는것처럼 可能하다면 應生科의 學生들이 식당의 위생관리를 하겠다고 奇拔한 아이디어」까지 들고 나왔다。 그러나 식당측은 고기는 냉장고에 저장하고 고기는 냉장고에 저장하여 온돌로 씻고있으니 과히 염려할것 없다고장담!。 탁자에 재떨이와 쓰레기통이없어 담배꽁초와 휴지들이 발에걸릴 지경인데 邊興燮(史四)君은이 學生들이 알아서 할 問題지만 제때 제때 식당에서 청소를 하지않은 보아라窟에서 나오는「깨스」때문에 食堂空氣가非위생적인것은 지금 한 일이지만 非위생적이란말은 誠意如何에따라 개선될수있는 일이다。

書店 한 散閑

奉仕나 實利나

構內서비스機關診斷함

構內서비스機關이차지하는 位置는 學生생활과 밀접한 關係를 유지한다는 점에서도 그 比重이 크지만 學生들의嗜好와 口味趣味에어느정도 適應될수 있느냐의 立場에서 그運營의 妙가 絶實히 요구되고있는 것이다。 서어비스기관의 顧客은어디까지나 學生 이다。 學生들의요구를 어느정도 充足시켜 줄수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서어비스 機關의 存在價値를 評價받게 된다는結論이 나온다。 構內서어비스기관이 일반영업 장소와 다른점이있다면 「實費提供」와 따뜻한 「친절」일것이며 이것이構內서어비스기관이 第一義로 갖는 特色이라 할것이다。 本校構內 서어비스기관은어느정도로 學生과教職員들에게 奉仕하고있으며 그反映은어떤가。 또 改善할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여기에 綜合診斷을 마련했다。

【植】

食堂

食堂改善策 세워지려나
하루七백그릇팔려

房厨食堂

휴계실같아
實費엔異常없다

理髮館

○ 食堂의 運營型態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學校直營와 業者에 委託하는 두型으로 분류있다。 우리학교는 後者에 屬하지 않으면 안된다。 어쩌든이 시각이면 인원이 가운을부접게하는 흠소리같은소리가 높아졌다가 사라진다。 그리고는 얼마동안 조용했다가 또다시 한때가 날아온다。 나는 의자에걸터앉아 일을하고 있는 담배를「파이프」에 담는다。 때때로 둔한 폭음이 들리고 창문이 덜그렁거린다。「런던」이 또공습을받고 있는 것이다。

○○

一九四一년一월十六일

○○

어디엔가팽개쳐진 것같은 기분과의싸움。나는 失意의 물결에 휘쓸려 정망의심연에 빠져서는안된다。 고독은 깊다。「로드멘」에 있어서의 생활은 깊이완전히 빠져버린 맥주와같다。 그러나 다른가능성이 없다。 나에게필요한것은 過去를떨쳐버리는 새로운 기력인것이다。 『당신의 진정한생명은 나의 경우처럼 思想과理念에 있읍니다』라고 언젠가 「데스먼드」가 나에게말하여주었다。

그러나 사상이나 이념은 물을「펌프」로 퍼어 올리듯 얻어지는 것이 아니란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자기 관찰이 귀찮아지게 되었다。 잠을 자서 긴장을 풀자。생각에 잠겨 있으면 그 다음은 料理、자전거、독서 특히 「하아버드·핏쳐」의 학고한 바위와같은、책 「유럽史」이것이 나의 處方箋이 된다。

폭풍의 한복판에 바람이 잠자듯 이 엿새동안은 공습이없다。 그러나 「가아뷔」의 얘기에 의하면、최대의 전투는 지금부터이며、그것은 앞으로 三週日이내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한다。 영국의 남자나、여자나 개나 고양이、심지어 昆虫까지도 무기를 잡지 않고 견딘다는 이야기등。불꽃이 타오르기 전의 차거운 瞬間。들에 꽃이 두서너송이 피어 있다。 우리들은 未來를 가지고있지 않다고。 열리지 않는문에 코끝을 댄채、기대 선 것 같다。

나는 펜을 다시잡고 ×에게 편지를 쓴다。

「한스·W·베아著「더·휴먼·보이스」에서

獨語特講

本會에서는 獨語 無料講座를實施하오니 會員은물론 재학생의 많은 聽講을 바랍니다

記

一、期間 4月6日부터 7月6日까지(午前 8時40分~午前 7時40分)

一、場所 A 0時840分講義室(本校)

一、教材 新獨逸語大講座(鷹口存男著)

一、講師 金鎔貞

一、受講料 無料

一九六五年四月 日

獎學生會長 白

先着順으로 配本中 입니다

學生手帖

主要目次: 年中行事豫定表 / 校歌 / 沿革 / 機關長 名單 / 教授名單 / 東國大學校 學則 / 總學生會 會則 / 選擧施行 細則 / 學生選則 / 獎學規定 / ROTC實施要綱 / 教科目表 / 行事參加確認欄

賣店·大學院守衛室取扱

神經症

神經症은 疾病이 아니다 藥物보다는 心理治療로

東京正生院의韓國唯一의直系인本院은卓越 特한心理分析療法으로約一個月間에責任矯正 노이로제·劣等·不安恐怖 對人恐怖·神經衰弱·不眠

▲創立滿十周年의歷史와權威있는講師陣으로 最大의施設·來談歡迎驚異的인業績을보시라 晝夜矯正·無休·通信矯正도함·家內書進呈

第五版 發行中 自家教書 값三百원送料20원 ③2266

서울中區筆洞·대한극장옆골목 神經症認 셰 타官 新生活院

寫眞技術

1, 安心하고 海外에 留學갈수있는 寫眞技術!
2, 安心하고 移民갈수 있는 寫眞技術!
3 高率의收入과 人氣의女性職業!

權威講師陣!/受講生接受中!
◉아마추어寫眞 테크닉 2週間完成
◉職業 D.P師 3個月養成
◉職業寫眞師 6個月養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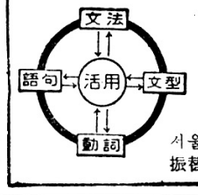
官認 東洋寫眞工科學院 (퇴계로首都女子師大附高옆)
中區忠武 2가32의8
院長 裵 亨 淳

새로운 學習參考書 待望裡에 堂堂히 遂 出刊!!

英作文研究

孔貞浩 著 美麗裝幀 4·6版 560p. 값 250원

本書는 英作文을 위한 文型·文法·動詞·語句의 活用을 中心으로 새로운 內容과 構成으로 엮어 나간 英作文學習書로서, 종래 英語學徒의 가장 難關이었던 英作文에 대한 苦心을 속시원히 풀어주는 名著이다.



서울特別市 中區 乙支路3街 326 振替서울 1997 ② 2578 ③ 6551 受驗社

IF I DON'T HAVE KUM KANG SHOES, I PREFER TO WALK BAREFOOT

INSTANT COMFORT CONSTANT SMARTNESS

KUM KANG

校內

本校生에限 大割引奉仕!

寫眞室

▲西獨Agfa Color ▲最高級人像寫眞 各種記念사진

構內電話336

圖書館4層 入口

戰爭手記

열리지 않은門에 기대어
〈버지니아 울프〉

버지니아·울프(Woolf, Adeline Virginia 1882—1941) 英國의 女流小說家이며 비평가。 평론가 울프(L.Woolf)와결혼했다。 意識의흐름을탐구하는 內面描寫와淸明文體로 異彩를 띠웠다。 二次大戰中전쟁에대한 우울증으로遺作 〈幕間〉을 남기고 투신자살했다。代表作 〈달로웨이 婦人〉〈등대에로〉등。

오늘아침 「뉴스」에의하면 독일군은 영불해협을북쪽으로 진격하고 있다한다。어제저녁 「처칠」은 우리들이 폭격을당했을경우에도 戰線에서 포화를안고있는 兵士들을생각하여 굳히는일이없도록 요청하였다。 맑고 바람이 센 오전이다。

○○

一九四○년九월十一일

○○

지금 「처칠」의 연설을들었다。 명확하고 침착하고 믿음직스러운 말재주。 영국에는 생명에 관련되는 질병이라 생각했다 이것은 흑사병보다 훨씬 무서운 전염병이다。 그것은 공기 前에 어깨짓수 없는 일이지만 非위생적이란말은 誠意如何에따라 개선될수있는 일이다。

○○

一九四○년五월二○日

○○

戰爭은 생명에 관련되는 질병이라 생각했다 이것은 흑사병보다 훨씬 무서운 전염병이다。 그것은 공기 前에 어깨짓수 없는 일이지만 非위생적이란말은 誠意如何에따라 개선될수있는 일이다。

○○

一九四一년一월十六일

○○

어디엔가팽개쳐진 것같은 기분과의싸움。나는 失意의 물결에 휘쓸려 정망의심연에 빠져서는안된다。 고독은 깊다。「로드멘」에 있어서의 생활은 깊이완전히 빠져버린 맥주와같다。 그러나 다른가능성이 없다。 나에게필요한것은 過去를떨쳐버리는 새로운 기력인것이다。 『당신의 진정한생명은 나의 경우처럼 思想과理念에 있읍니다』라고 언젠가 「데스먼드」가 나에게말하여주었다。

그러나 사상이나 이념은 물을「펌프」로 퍼어 올리듯 얻어지는 것이 아니란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자기 관찰이 귀찮아지게 되었다。 잠을 자서 긴장을 풀자。생각에 잠겨 있으면 그 다음은 料理、자전거、독서 특히 「하아버드·핏쳐」의 학고한 바위와같은、책 「유럽史」이것이 나의 處方箋이 된다。

폭풍의 한복판에 바람이 잠자듯 이 엿새동안은 공습이없다。 그러나 「가아뷔」의 얘기에 의하면、최대의 전투는 지금부터이며、그것은 앞으로 三週日이내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한다。 영국의 남자나、여자나 개나 고양이、심지어 昆虫까지도 무기를 잡지 않고 견딘다는 이야기등。불꽃이 타오르기 전의 차거운 瞬間。들에 꽃이 두서너송이 피어 있다。 우리들은 未來를 가지고있지 않다고。 열리지 않는문에 코끝을 댄채、기대 선 것 같다。

나는 펜을 다시잡고 ×에게 편지를 쓴다。

「한스·W·베아著「더·휴먼·보이스」에서

館髮理 는 붐비다

不請客自來

아가씨는勇敢했다

○ 아가씨는 용감하였다」라는것 한결같은 남학생들의 評!。

○ 「延期·流會·또延期!。」百年何淸格으로 질 끝기만 하는 代議員 總會는 決算審議를 할때 가한번 빠지고 다가오는데 아직豫算審議를하지도 않고 學校直營 委託하는 決議를 한다고 는 공습이 있은동안 「메크렌버그·스케아」에 있었던것이다。 「런던」 우리들의 집에는 유리창문이 전부 가루가되고 유리 했다고한다。 그는어딘지 다른곳에서 기거를한다 티·타임직전、競走場상공을 나르는 敵機한대가 우리들의눈앞에서 격추되었다。 소위 비행기끼리의 격투에서 급한 「커브」를그린다。 그리고는 광장한폭음을 내면서 추락。 몽롱한 검은연기。 「퍼시」의말에의하면 「파이롯트」는 낙하산으로 내렸다는것이다。

八시반경이면 공습이있을것이라고 각오하지 않으면 안된다。 어쨌든이 시각이면 기분을부접게하는 흠소리같은소리가 높아졌다가 사라진다。 그리고는 얼마동안 조용했다가 또다시 한때가 날아온다。 나는 의자에걸터앉아 일을하고 있는 담배를「파이프」에 담는다。 때때로 둔한 폭음이 들리고 창문이 덜그렁거린다。「런던」이 또공습을받고 있는 것이다。

○○

一九四一년一월十六일

○○

어디엔가팽개쳐진 것같은 기분과의싸움。나는 失意의 물결에 휘쓸려 정망의심연에 빠져서는안된다。 고독은 깊다。「로드멘」에 있어서의 생활은 깊이완전히 빠져버린 맥주와같다。 그러나 다른가능성이 없다。 나에게필요한것은 過去를떨쳐버리는 새로운 기력인것이다。 『당신의 진정한생명은 나의 경우처럼 思想과理念에 있읍니다』라고 언젠가 「데스먼드」가 나에게말하여주었다。

그러나 사상이나 이념은 물을「펌프」로 퍼어 올리듯 얻어지는 것이 아니란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자기 관찰이 귀찮아지게 되었다。 잠을 자서 긴장을 풀자。생각에 잠겨 있으면 그 다음은 料理、자전거、독서 특히 「하아버드·핏쳐」의 학고한 바위와같은、책 「유럽史」이것이 나의 處方箋이 된다。

폭풍의 한복판에 바람이 잠자듯 이 엿새동안은 공습이없다。 그러나 「가아뷔」의 얘기에 의하면、최대의 전투는 지금부터이며、그것은 앞으로 三週日이내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한다。 영국의 남자나、여자나 개나 고양이、심지어 昆虫까지도 무기를 잡지 않고 견딘다는 이야기등。불꽃이 타오르기 전의 차거운 瞬間。들에 꽃이 두서너송이 피어 있다。 우리들은 未來를 가지고있지 않다고。 열리지 않는문에 코끝을 댄채、기대 선 것 같다。

나는 펜을 다시잡고 ×에게 편지를 쓴다。

「한스·W·베아著「더·휴먼·보이스」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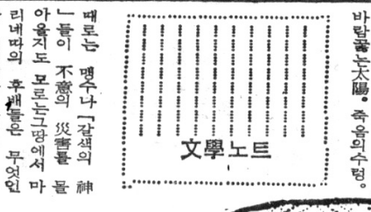
偉大한 밤의 旅路

超現實主義의 俯瞰

R•M• 알베레스

千 堤 朴

이태리 밀라노의 雜誌「포에지아」의 主筆마리네띠가「未來派 宣言」을 發表한 一九〇九년二월은 文學史家들의 평면적이고 둔탁한 머리에 閃光을비쳐준것이었다。現代詩는 마침내 二十세기의 到處에서 게으름과 앙뉘의 잔치속에 허덕이던, 그리고 冒險을求하고있던 시인들에게 새롭고 넓으며 미쳐개간되지않았던 꿈의땅을 먼저주게 된것이었다。 집념과 끈기와 야만의 바탕을 는太陽。즉 음의수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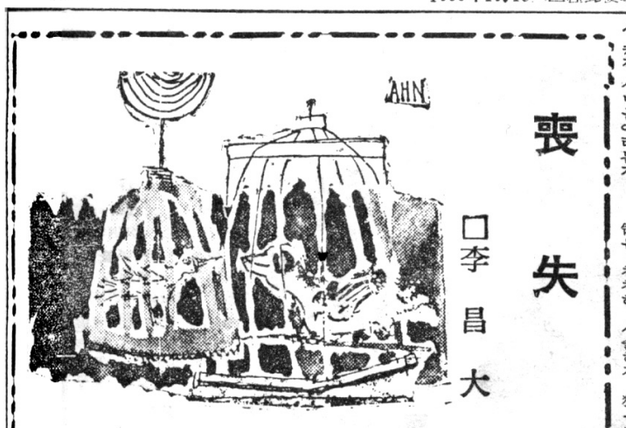


때로는 맹수나「감색의 神」들이 不意의 災害를 들아올지도 모르는그땅에서 마리네띠의 후배들은 무엇인가 버리려하였다。

그들의 方向감각은? 行裝은? 그러나 그러한의문은그들의 行程을 우리가 더들어감에 극히우연하게 풀리어 짐것이다。그러는 동안그들이그들도 모르는사이 흘리었던 寶石이라도 한개주울수있다면 그 또한 하나의 기쁨이 아니겠는가!

아뽀리네에르, 삐까소, 막스。자꼽을 首領으로 회화에 류비즘이란 새로운충격이 加해졌고 그충격은詩에도 파급되어왔다。그들중詩人의 이야기를 하나 들어보기로하자。

『자연의 어떠한 運動도 무시하지 않는다。시인의精神은 發見을추구한다。자연의 運動이 군상, 星雲, 태양과같이 광대하고 포착할수없는 組織이건 가장단순한 外見속에진事實。가령 포켓에 넣는손이라든가 귀에 켜진성냥불이라든가!』



喪失

大昌李

이 길의 이즘에서
모든것이 분명 해지네。
計量器속의 공간에서
몇 키로 그탑의 무게
몇 리터의 용적
몇 센치 메터의 길이로
나타나는 거기에 내가없네。
란드세투속에 있던 내 꿈이
올몇이 살아지고 없네。
이 길의 이즘에서
만났던 景氣 恐慌 戰爭、
그 많은 날날속에 없네。
란드세투속에 있던 내 平和가
오늘 일개미처럼 몇장의 証券과
몇장의 土地文書위를 거니르며
말을 버렸네。내일도 잊었네。
란드세투속에 빛나던것을 잃었네。
내 재산은 무엇일가。
証券일까 목숨일까。
목숨일까 土地文書일까。
누구인가 엄밀이 나를 헤아리는데
영원으로 향한 자세를 잃었네。
나는 모두를 잃어 버렸네。

<同門・詩>

破産으로 끝난「다다」

未來派、큐비즘、「다다」에서 超現實主義로

超現實主義는 想像力更新의 失敗에서

宣言을 시작했다。新聞紙는 單語는 앙드레。브르통에게 발견되어 精神의 가장偉大한 自由를 主唱하게 된 것이었다。

二十여년전「一九〇〇년」가 요구해 온「관습으로부터 脫出하여 그 자연적 발생」을 찾기 시작한것이었다。알베레스는 그들에게 특징적인 信仰의 근원을 설정하면「超現實主義 觀念」을 랭보의冒險의 자취를 따라가 명확하게定義하듯 超現實主義者들의秘教的인 根源을 알수있다고 說破하고있다。

그러면、그들의 第一 詩素材를 그들의 원천적 영감의하나인 랭보의 詩에서 찾아보자。

「나는 단순한 幻覺에 익숙해있다。나는 아주 명료하게 工場이 있는 곳에 回回教 寺院을、천사들의 학교를、天上의 길을 지나가는 四輪馬車를、湖水밑바닥의 싸움을 보곤했었다。 나는 마침내 精神의 錯亂이 神聖한 詩의형태는 消滅에 가차운 형태라는 그들의 主張은 꿈을 일깨우는 것、오토마티즘같은 超現實主義의 技法에 의해 결국 본질적인 意志에 몰입하자는것이었다。

확고한 空間、새로운 기억이나 잃어버린 時間의再發見、이것 역시 世界의깊은 현실에대한 인식인 동시에 무의식과 잠재 의식에대한 참된 인식이었다。

詩는 비로서 스스로의世界를 (보편적인 의미에서의) 찾게 된것이었다。

人間이 언제까지나 살려고하는 맹목적인 意志가 현실의 세계를 깨뜨리고서 완전한 것이 되고자하는 努力의 詩。超現實主義는 우리시대 한 詩의형태는 消滅에 가차운 형태라는 그들의 主張은 꿈을 일깨우는 것、오토마티즘같은 超現實主義의 技法에 의해 결국 본질적인 意志에 몰입하자는것이었다。

확고한 空間、새로운 기억이나 잃어버린 時間의再發見、이것 역시 世界의깊은 현실에대한 인식인 동시에 무의식과 잠재 의식에대한 참된 인식이었다。

詩는 비로서 스스로의世界를 (보편적인 의미에서의) 찾게 된것이었다。

人間이 언제까지나 살려고하는 맹목적인 意志가 현실의 세계를 깨뜨리고서 완전한 것이 되고자하는 努力의 詩。超現實主義는 우리시대 이들처럼 의기양양하게 그들의 조그마한 머리 다섯이 三〇〇年동안 내려온慣習에 終末의 못을 박았다는것을 떠들어 댔다。

다다가 바라고있었던 것은 가장 용감한 방법으로 벌거벗은 眞理에 다달으려 것이었다。 빠리는 들떠거리고 말았다。

「文學」이라는 雜誌가 그들의 거점이되었다。目次를 살펴보자。막스。자꼽、뉴피、바레리、지드等이 얼굴을 내밀고 있었다。그러나 가장 중요한 인물은 우리가 이미 알고있듯이 三人의 편집자 앙드레。브르통、루이。아라공、필립。슈르였다。

이제 우리는 다다가던진 最初의 事件을 想起하기로 하자。

一九二〇年「文學」은 宣言、강습회를 개최하였다。順序는 장。곡토가 막스。자꼽의 詩를 낭독하여 청중들(大部分이文人)의박수를얻으므로 시작했다。

이어 앙드레。브르통이 검은 캔바스위에 아무렇게나 크레용으로 개칠을한 피카비아의 그림을 紹介할때청중들은 소란해지고있었다。

마침내 시에 다분히 니힐한 빛깔을지닌 다섯 사람의 宣言書를 들쳐봐도 우리는 거기에서 수많은 反對에 관한 語句만을 볼수 있을 뿐이다。

『다다는 파산을 의식하면서도 이것을 막고자 하지 않았다。破産은 實로 다다의 記號인 것 이었다。이리하여 다다는 終焉하였다。』 그리고「다다公報」로 시작한 다다의 刊行物은「喉人種」을 最後로 기록했다。

다다는 무의식과 정신상태를 통해서 극히 정확한 技法의 바탕아래 다다를 體系化한 超現實主義에게 그 자리를 양도한 것이었다。

『그때들은 모두 天蓋다 運動의 大統領이다!』 라는 그들의 閉會辭는 文學史의 두터운 잠피에 빛을내는 點으로 박혀있게 되었다。

그리하여 우리는 超現實主義에 接하게되었다。同時代의 또하나의 중요한 詩派、이지스트들에게 까지 영향을준 超現實主義(그저께로 評家들은 엘리오트의 황무지一部를 들고 있는것이다。) 이다。

하여간 아뽀리네에르에의해서 발명된 超現實主義라는 名稱은 앙드레。브르통에게 발견되어 精神의 가장偉大한 自由를 主唱하게 된 것이었다。

二十여년전「一九〇〇년」가 요구해 온「관습으로부터 脫出하여 그 자연적 발생」을 찾기 시작한것이었다。알베레스는 그들에게 특징적인 信仰의 근원을 설정하면「超現實主義 觀念」을 랭보의冒險의 자취를 따라가 명확하게定義하듯 超現實主義者들의秘教的인 根源을 알수있다고 說破하고있다。

그러면、그들의 第一 詩素材를 그들의 원천적 영감의하나인 랭보의 詩에서 찾아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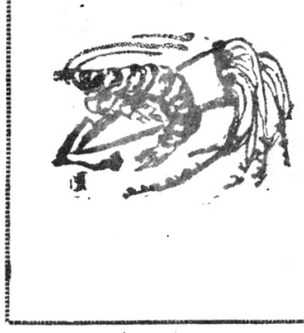
「나는 단순한 幻覺에 익숙해있다。나는 아주 명료하게 工場이 있는 곳에 回回教 寺院을、천사들의 학교를、天上의 길을 지나가는 四輪馬車를、湖水밑바닥의 싸움을 보곤했었다。 나는 마침내 精神의 錯亂이 神聖한

<피카소가그린아뽀리네에르>

未解決의 章

文允鎬

훤ㅇ하니 틈틴 사각(四角)으로 화살이 날랐다。무사히 들어 박혔다。빗나간 놈은 새까맣게 물드려진 화장속으로 꺼꾸러져 갔다。어둠은 마른 침을 삼키며 여전히 으르렁 거리고있었다。또 화살이날카롭게 비명을 그었다。과녁은 이미 곰보가 되어있었다。시위는 맥이빠졌다。드디어 고개를 숙이고 말았다。가느다랗게 오열 하다가내지 쳐 들어졌다。혁(赫)은 활을 내던졌다。열한번째의 대결은 끝났다。또 틀렸다。 욕력 짝중이 났다。



<이에이、나두 이젠 불장난때기를 두른 계집아이까지 사람을 놀려。 어이구 머러워서、고게 그래두 거기엔 철판을 깔았다는 거기。 하여 쳇、참말루!。아예 씬어 먹어야 되는전데、씬어。>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순간심한 공격과 갈증이 뒤를따랐다。그는 냇물을 움켜쥐었다。반사적으로 구부리고 똑바려운 강아지 꼴로 머들거렸다。 레지의 차거운시 선이쪽 쑤시고들어왔다。힘을내어 주먹을 쥐어 보았다。날정이 끝난 다음같이 기운이 풀어져 있었다。<아무래도 고걸 아싹 깨물어 먹어야수월히 되겠어。 시원하게마져 줘야지。 아주 기막히게!。>

그는 등신처럼목을 움추렸다。 다시 털퍽 영덩이를 깔았다。백기(白旗)를 번쩍 올려야 하는것은 과히 氣分이나는 수치와 분노가 휘감겨 들었다。<넌 자식아 병신이란 말이다。 어디서주어온 자루같이 생겨먹은가시나 하나 소화시키지 못하고 그냥뒹굴어져。 제켠에서 사죽을 못쓰게 만들어 놔。 동태눈깔을 해가지구 빌빌거리지 말구。 차라리 알맹이를 빼어버려。>

<또 내가 졌다。 허지만、허지만 이번만은분제가 달러。 내 목아지를 걸더래도 좋아 위신과체면을 송두리채 내걸구 겨룰용의가 있어。>

『그래? 비싼 흥정이군。 알량한 녀석、소원 이라면 나두 생각이 있어。 나두 남자야、남자이니까。 성의 있게 놀는 바람에 이어지지 않고는 못 배겨 낸다。이것도 모두 女學生의 數가 적은 탓이긴 하겠지만 男學生들에게부 탁하고 싶은 것은 여학생들을 위하여 맨치의 사상해주시는 것이 어떨런지。 그것이 나이트精神의 美德이 아닐까요。(英文科)

우리 학교 캐머퍼스에 첫발을 들여놓던 날。그것은바로 입학원서를 사러왔을때이다。나를 사로잡는것이 즐비한 벤치들이었다。초록色과 약간古色이감도는 벤치들이 우리들을 기다리는안나란히 손짓하였다。그러나내가入學한후이 벤치들이 고민아닌고민을 나에게 주리라고는 예상도못했었다。學校에 發拔할때면으레히 많은 學生들이 벤치에앉아있었다。男學生들은 어떨런지 모르지만 女學生들은 참으로 그 앞을지나기가 마냥 쑥스럽다못해 어쩐 때는 다리와팔 이 함께 行進을 할 지경으로 긴장이 된다。벤치에앉아 있던 男學生들은 멀리서 女學生이보 일이다。 목욕하고 이고 가노라면 "숙아 회 들이 놀리는 것보다는훨씬 친근한?"맛이 있어좋은 것이다。 어쨌든 이벤치들과 四年을함께 지내게 되었으니 情도 좀 부쳐야 겠지만 이상하게도 우리學校의 벤치들은 모두가 學生들의 專有物인듯싶다。행여나 수업이 없을때 좀 앉았노라면 옆에 앉았던 男學生 친구들이 자꾸 몰려와서 놀리는 바람에 일어나지 않고는 못 배겨낸다。이것도 모두 女學生의 數가 적은 탓이긴 하겠지만 男學生들에게부 탁하고 싶은 것은 여학생들을 위하여 맨치의 사상해주시는 것이 어떨런지。 그것이 나이트精神의 美德이 아닐까요。(英文科)

四生女學迎新 枚限每土요일마감 投稿

메아리

○「푸로스」는 「안띠고네」와는 이드」는 억압된 욕망을 「오이디프스。컴푸렉스」와「엘렉트라。컴푸렉스」로 분류하였다。「오이디프스。컴푸렉스」란 기구한 운명에희롱당하여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아내로 삼게된 것을 안「오이디프스」가 두눈알을빼고 스스로 광명을 거부하면서 유랑과 수난을에 죽게 된다。이렇게 아들이 어머니에서 느끼는 性的인 잠재적複合을「오이디프스。컴푸렉스」라한다。

狀況을 달리하지만 그性格의特色은 어느點에서는 共通點이 있다고 할것이다。

○「컴푸렉스」、「컴푸렉스」하지만 요새는어디다가도「컴푸렉스」란말을 잘붙이고 또한 많이 사용을한다。女性이 通常、男性에게 느끼는 劣等「컴푸렉스」、食者가 富者에게 느끼는 反抗的인「컴푸렉스」、三流가 一流를 對하는 질투섞인羨望의「컴푸렉스」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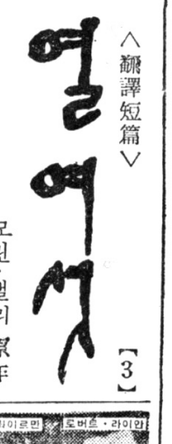
이「컴푸렉스」를「病」으로看做하는건 그리 잘못된일은 아닐 것이다。

○一한국에서 年例的으로 부드러지는건 「四月。컴푸렉스」라 할수있는것같다。四月에「컴푸렉스」를 갖다부치는것은이상하리만치 어색감을갖게하나확실히이것은存在하고있다。政街와大學街에선이四月「컴푸렉스」때문에 神經戰을 쓰고 있는지도모르며 春期大攻勢를 取하는것인지도 모른다。이왕「컴푸렉스」에걸릴바에야 平和線死守의「컴푸렉스」라도슬어 나보실까?

【C】

컴푸렉스

얼어붙은 [3]



모린・델리 原作
韓龍煥 譯
安鄕 畫

그이는 내게 향하여 한 주먹의 눈을 던졌는데 그것은 하얀 가루가 되어내 머리에 떨어졌읍니다。그이는 그 눈가루를 털어주기 귀해 몸을 굽혔읍니다。숨이막힐것 같았읍니다。

밤은아직고 요했읍니다。 따뜻해 보이는 오두막집지붕 바로위에 참외를네조각으로 잘라 놓은듯한 초생달이 걸려 있었읍니다。 굴뚝에서 나온연기가 회부연 안개속으로 피어오르고 있었읍니다。근처의 불빛을 받아서 스스로의世界를 낳독하여 청자관의 詩를 낳독하여 청중들(大部分이文人)의박수를얻으므로 시작했다。

이어 앙드레。브르통이 검은 캔바스위에 아무렇게나 크레용으로 개칠을한 피카비아의 그림을 紹介할때청중들은 소란해지고있었다。

마침내 시인들을 主로) 그들은 참으로 비참한 것이다。 에 푸루니세코는 그들이 詩를 버렸었다。 오늘의 詩人들(서정시인들을 主로) 그들은 참으로 비참한 것이다。 에 푸루니세코는 그들이 詩를 버리는게 아니라 詩와 거역대는 生活의 詩人의 詩가 버리는 것이라 말한다。

마치가지로 絶對에서 出發해야 할 詩가 個性과 모든 環境에서 벗어날때 오늘의 그 시인들은 비참한 것이다。

시는 絶對에의 비약을 시작해야 하는 것이다。 純粹意志로서 무수한 可能의 땅을 개간해야 하는 것이다。

〈國文科